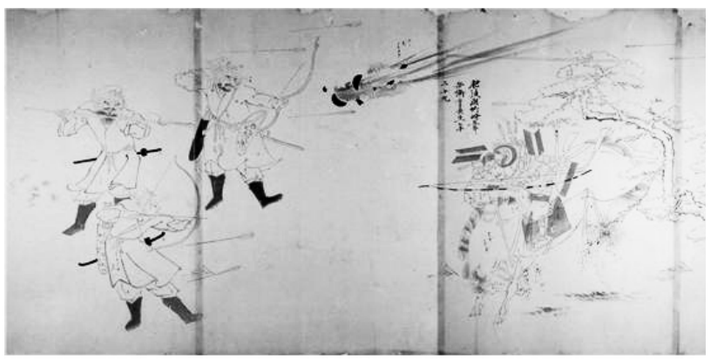
대몽 불굴의 항쟁 펼친 '삼별초'의 기개

나주박물관 '삼별초와 동아시아'

강화·진도·제주도 출토 유물
내일 개막 日 요시이 교수 특강
건국 1100년 고려사도 조명



여몽연합군의 일본 침공을 그린 그림 '몽고습래회사'

'고려사'

'청동북'

'청동사자광명대간주'

'철제포탄'

올해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며 동시에 고려 왕조가 건국된 지 110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다.

1018년 전국 팔도 가운데 가장 먼저 '전라도'로 정명돼, 1314년 명칭이 부여된 '경상도'보다 200여년 앞섰다. 이후 충청도(1356년), 강원도(1395년), 평안도(1413년), 경기도(1414년), 황해도(1417년), 함경도(1509년) 등의 순으로 정명이 됐다.

전라도 정도 1000년과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려시대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오는 26일부터 기획특별전 '삼별초와 동아시아'를 개최한다. 8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은 13세기 후반 몽고 침략에 맞서 싸운 삼별초의 항쟁과 당대의 역사를 조망한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전시는 삼별초의 탄생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과정을 강화에서 진도, 제주, 다시 일본에 이르는 여정을 따라 소개한다. 삼별초의 대몽항쟁을 통해 13세기 동아시아 역사와 고려사를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부에서는 삼별초 출범부터 강화도와 관련된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무신정권에 의해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왕조는 1270년 결국 몽고에 항복하기로 한다. 당시 개경으로 환도를 결정하지만 삼별초는 끝까지 맞서 싸우기로 결의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강화도 삼별초의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는 '강화부궁전도', '고려청자' 등이 전시된다. 또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기를 기원하며 만든 영동 가곡리 출토 '청동북', '고려대장경목판' 등도 소개된다.

2부에서는 강화에서 진도로 옮긴 삼별초의 활동을 진도 용장성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천혜의 자연요새인 진도에서 삼별초는 몽고군보다 유리한 해상능력을 바탕으로 저항 전쟁을 수행했다.

진도 용장성에서 출토된 '청동사자광명대간주', '청동합'을 비롯한 다양한 출토유물과 바닷길로 항해 도중 침몰한 각종 해저출토유물이 전시된다. 특히 삼별초의 근거지였던 전남의 사원세력 등을 재조명해 진도를 거점으로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자 했던 삼별초의 활동상을 조명할 수 있다.

진도에서 제주 항파두리성으로 옮긴 제주지역의 삼별초도 만난다. 제주 항파두리성은 삼별초의 마지막 근거지로 현재까지도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3부에서는 항파두리성의 내성과 외성에서 출토된 '명문와'를 비롯한 각종 청자 등을 소개한다. 또한 1281년 여몽연합군과 일본군의 전투 장면을 묘사한 그림인 '몽고습래회사(蒙古襲來繪詞, 일본 후쿠오카시립박물관 소장)'와 큐슈 다카시마 바다에서 발견된 원나라 군대 관련 유물, 제주산 현무암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함선의 닻돌 등이 소개된다.

마지막 4부는 최후 근거지였던 제주도 항파두리 요새가 함락된 이후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간 삼별초의 흔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키나와에 남겨진 고려식의 성(城)과 출토유물을 통해 삼별초 패망 이후 잔여인원들이 오키나와로 건너가 그곳에 남긴 영향을 조명한다.

한편 개막일인 26일 오후 4시에는 특별전에 대한 전시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후 2시에는 국립나주박물관 초청 외국 전문가 특별강연회가 열린다. 일본 교토대학 요시이 히데오(吉井秀夫) 교수가 '일본에서 본 삼국시대 영산강유역'이라는 주제로 영산강유역과 일본열도와의 교류관계에 대해 강연을 한다. 요시이 히데오 교수는 일본에서도 발견되는 영산강유역의 문물들을 토대로 고대시대 영산강유역은 어떤 곳이었는지를 조명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인 요시이 교수는 경북대에서 유학을 했으며 한국인 부인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희망자는 누구나 들을 수 있다. 문의 061-330-783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업비밀? 독자가 체험하게 하는 것"

정유정 작가 인터뷰집 발간

지승호와 집필방식 등 대담

"소설은 일단 재미가 있어야 한다. 독자를 홀려서 허구라는 낯설고 의심쩍은 세상으로 끌어들이려면, 그러나 소설적 재미가 단순한 자극이나 흥밋거리만을 뜻하지 않는다. 상업주의적 작품을 칭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독자가 내 소설 안에서 온갖 정서적 격랑과 만나기를 원한다. 기진맥진해서 드러누워버릴 만큼 극단의 감정을 경험하길 원한다."

작가 정유정이 소설 쓰기에 관한 이른바 '영업비밀'을 털어놓았다. 인터뷰어 지승호와 나눈 '정유정, 이야기를 이야기하다'(은행나무)에서 소설 창작에 관한 평소의 생각을 풀어냈다.

정 작가는 인터뷰집에서 '내 심장을 쏴라', '7년의 밤', '28', '종의 기원' 등의 소설들이 어떻게 창작됐는지 밝힌다. 등단 과정의 고단함과 작가론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야기를 쓰는 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 작가는 소설을 '생각하게 하는 소설'과 '체험하게 하는 소설'로 나눌 때 자신은 후자쪽 에 속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독자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기 위해 시각적이고 구체적이며 생생한 이미지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이다.

특히 등단 이전 간호사로 근무했던 경험은 지금의 소설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한다. 정 작가는 "간호사 경력이 작가로서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간호사 시절 대부분을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보냈다. 둘 다 생사를 오가는 사람들이 거쳐 가는 장소다. 그곳에 몇 달만 머물러보면 알게 될 거다. 평범했던 사람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애늙은이가 된다. 이십대에 머릿속만 오십대가 되는 거다. 인간의 생사고락을 수도 없이, 요약편으로 겪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책에는 작가의 개인사를 포함해 등단하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다. 간호사로 한 집안의 가장으로 이십 대를 다 보낸 그녀는 6년간의 습작, 열한 번의 공모전 낙선 끝에 마침내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로 제1회 세계청소년문학상에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그리고 지금은 100만 독자를 사로잡은 스타작가로 발돋움했고 '내 심장을 쏴라'와 '7년의 밤'은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다.

"정유정의 소설이라면 믿고 본다"는 팬들과 그의 소설을 주목하고 있는 독자라면 유용한 책이다. 또한 소설을 쓰고 싶지만 망설이고 있는 이들에게도 실질적인 조언이 될 듯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장 당선자 문화공약 진단한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등 4개 단체 내일 포럼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박병주), 광주예총(회장 최규철), 상상실현네트워크(대표 정두용), 6·13지방선거문화정책연대 등 4개 단체는 26일 오후 2시30분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 강당에서 '문화도시 광주! '길'을 묻고 '답'을 구하다' 네번째 포럼을 진행한다.

'민선 7기 문화정책 방향 및 핵심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지역 시민문화예술단체가 제안한 '문화정책 방향 및 10대 핵심과제'의 수용 촉구와 광주시장 당선자의 주요 문화공약의 진단을 통해 민선 7기 문화도시 광주의 비전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한 공론의 장이다.

좌장은 한선 호남대 교수가 맡으며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대표가 '시민문화계가 바라는 민선 7기 문화정책 방향 및 과제', 박향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이 '행정이 논하는 민선 7기 문화도시 광주'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김도일 조선대 교수, 임인자 독립기획자, 한지성 문화공동체 한판 대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의 시민문화계와 시민의 참여 방안, 문화행정의 근본적인 혁신 방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정상화와 전당의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의 역할및 과제 등에 대해 중점 토론한다. 문의 062-234-272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에 김현진씨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역임

내년도 제58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예술감독에 제7회 광주비엔날레 공동 큐레이터를 역임한 김현진(43) 씨가 선정됐다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2일 밝혔다.

김씨는 홍익대와 동대학원에서 예술학을 공부했으며 대안공간 루프 큐레이터, 아트선재센터 학예연구원, 아르코 미술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카디스트 아시아 지역 수석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동아시아 근현대를 탈주하고 재구성하는 수행적 여성 서사들'을 주제로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인 남화연, 정은영, 제인 진 카이젠 등 3명의 여성 작가와 전시를 진행하다.

내년도 베니스비엔날레는 5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이탈리아 베네치아 자르디니 공원 및 아르세날레 일대에서 열린다.

런던 헤이드워드 갤러리 관장인 랄프 루고프가 총감독을 맡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최대 50% 저렴하게 예매하세요

2018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 예매입장권 판매가 시작됐다. (재)광주비엔날레는 개막 전인 9월 6일까지 2018광주비엔날레 예매입장권을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및 기타 판매처에서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재단 홈페이지 티켓정보 페이지 이외에도 입장권판매대행기관인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와 네이버 예매에서 구입할 수 있다.

예매 입장권은 행사기간 내 현장 판매 입장권 보다 30~5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현장 판매는 어른 1만4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이나, 사전 예매할 경우 어른 1만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광주비엔날레-코레일 패키지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KTX 열차표와 함께 비엔날레 입장권이 패키지로 판매된다.

한편 2018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은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66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지에서 열린다. 문의 062-608-4228.

/김미은 기자 mekim@